

복음으로 일어나는 중부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감독선거

후보

3 김찬호 목사



김 찬 호 목사
중부연회 강화북지방 은혜교회
1964년 12월 24일

학력

1986년 감리교신학대학교 졸업(신학사)
1990년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신학석사)

목회

1991년 3월 중부연회 준회원 허입
1993년 3월 중부연회 목사안수
1995년 3월 중부연회 정회원 허입
1990년 4월 ~ 1994년 4월 강화남지방 동검교회 담임
1994년 4월 ~ 현재 강화북지방 은혜교회 개척 및 담임

경력

2010년 강화북지방 감리사 역임
2012년 중부연회 연회서기 역임
2015년 중부연회 재판위원 역임
2016년 총회 장정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2017년 총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2017년 총회 동성애 대책위원 역임
2018년 총회 특별 재판위원 역임
현 한국이단대책협의회 상임회장
현 한국성소수자전도연합 실행위원장
현 100만 전도자 세우기 전문위원

	입교인수	경상회계 수입결산액	지방부담금	연회부담금	본부부담금	은급부담금	선교활동	
							국내	국외
2018년	869	1,012,000,000	5,520,000	3,312,000	5,520,000	11,040,000	7	123
2019년	869	1,020,000,000	11,100,000	3,330,000	5,550,000	11,100,000	7	123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웨슬리 신앙으로
복음전파 하는 중부연회

은혜교회는 15명으로 개척하여 제자양육과 세계선교비전의 목회철학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3대째 감리교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은혜교회는 무당과 불교와의 영적전쟁, 이단 신천지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와의 영적전쟁에서 성장하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온 세상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영적으로도 신앙의 대 혼란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부와 세속 사회 속에서의 공격 가운데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대 속에서 철저한 복음의 대응이 필요하며 그 어느 때보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저는 중부연회의 감독으로 출마하여 하나님의 소명과 한국감리교와 중부연회가 처한 현실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중부연회에서만 30년을 목회한 만큼 중부연회를 잘 알고, 이에 저의 목회철학을 반영하여 중부연회를 부흥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주의 신학의
기초위에
중부연회 부흥을 위한
5가지 정책

1. 다음세대를 위한 정책

저는 교회 개척과 함께 어린이 신앙교육을 위하여 은헤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지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교단체인 인천교육자 선교회 지도목사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는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중부연회 각 지방에 교회학교 연합회를 활성화 하고 권역별 교사대학과 전달강습회를 강화하며 학원과 교회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캠퍼스 부흥과 교회학교 부흥을 꾀하겠습니다.

2. 실버세대들을 위한 정책

초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증가하는 실버세대를 위한 성경학교를 운영하고 다음세대와 신앙의 연대를 통하여 부흥을 이뤄가겠습니다.

3. 비전교회와 도약교회를 위한 정책

비전교회와 도약교회의 부흥과 지원을 위해 TF팀을 구성하여 개체교회를 찾아가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학적 접근과 재정적 접근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개척하는 교회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전월세교회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겠습니다.

4. 웨슬리 신학과 복음적인 목회를 위한 정책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웨슬리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을 현장목회에 적용하지 못한 채 목회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신학위원회가 권역별로 웨슬리 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세미나 및 전도부흥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둘째,
기독교 역사
컨텐츠를 위한
3가지 역점 사업**



5.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정책

중부연회가 한국교회 ‘2030, 10만선교사 파송운동’에 적극 헌신하며 감리교성도 300만 부흥운동에 앞장서겠습니다. 10만 선교사 파송을 위한 종족입양식과 목회자 및 평신도 선교사 파송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권역별 전도운동을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은혜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30년 동안 선교사 파송과 지역전도에 헌신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연회, 전도하는 연회로 중부연회를 운영하겠습니다.

1.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선 복원과 성지순례 개발

이미 선교선 복원을 위해 ‘선교선 복원 위원회’가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수고해 왔습니다. 선교선 복원사업과 인천 성지순례를 연결하여 확대 개발하겠습니다. 제물포항에 들어왔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선에서 출발하여 선교사들의 숙소였던 대불호텔, 아펜젤러 기념공원, 인천내리교회와 정동제일교회 그리고, 양화진 까지 연결되는 순례의 길은 한국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국 선교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여정을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2. “강화 마리산 성령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한 기독교 역사순례 개발

강화 마리산 성령운동의 중심이었던 ‘강화 마리산 새벽기도운동’은 강화 마리산 기도원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전파된 한국교회 새벽기도 운동의 불씨였습니다. 강화의 최초의 교회인 교산교회와 흥의교회, 강화중앙교회 등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들과 연결하여 성지순례로 복원하겠습니다. 이 기념 사업이 중부연회의 기도운동과 성령운동에 불쏘시개가 되게 하겠습니다.

3. 인천기독교병원 100주년 기념과 로제타 홀 기념관 건립 추진

로제타홀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자 생명을 구하는 의사로서 그 누구보다 더 조선을 사랑한 의료선교사입니다. 그녀가 세운 부인병원은 지금의 인천기독교병원의 전신으로 이 땅의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들의 영과 육의 생명을 구하였고 지금까지 인천 시민들에게 사랑, 믿음, 소망의 기독교 정신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인천기독교병원 개원 100주년으로 로제타 홀의 사역을 재조명하고 이를 기념하겠습니다.

셋째, 교회와 복음을 공격하는 세력들에 대한 대처 방안



1. 동성애 대책위원회 구성과 적극적 대응

저는 5년 전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감리교 동성애 반대 입법안을 상정하여 모든 교단 최초로 교단의 교리와 장정에 입법되었습니다. 최초로 신설된 감리교본부의 동성애 대책위원회 신학부장을 맡아 사역하였으며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국성소수자 전도연합’ 위원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되면 연회 안에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경과 교회를 대적하는 동성애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 이단 대책위원회와 이슬람 대책위원회 설치

연회 안에 이단대책위원회와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세미나를 열어 알리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저는 감리교 이단 대책위원회 서기와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지금은 ‘국제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 상임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슬람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고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이슬람대책위원회와 동성애 대책위원회 두 가지를 최초로 발의하고 입법한 장본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동성애, 이단, 이슬람의 문제가 물밀듯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며 사역 하고 있는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코로나 기간에 신앙의 성결운동과 섬김운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예배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과 떨어진 사회적인 신뢰도는 신앙의 성결운동과 섬김 운동이 우선 될 때 회복이 되고 사회적인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리교가 고소고발과 관련 10년간 진통을 겪게 된 것은 감리교의 영적질서와 교회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리교가 신앙의 성결운동과 섬김 운동으로 영적인 질서와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리더십이 회복되어 교단의 진통도 끝이 나고 사회적 신뢰도 회복 될 것을 확신합니다.



CEO가 읽으면